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5월 2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 현장소통팀장 권미희 ☎440-2416 • 담당자 최대리사 ☎440-241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굴현역 이용 불편 해소위해 주민들과 현장소통

- 이행숙 정무부시장, 굴현역 인근 주민들과 ‘생활현장 속으로’ 소통 나서 -
- 굴현역기는 보행로 없는 불편에 공감하고, “해소방안 마련위해 소통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인천지하철 1호선 굴현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굴현역 이용 불편에 공감하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지역 곳곳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현장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소통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는 계양구 굴현역 인근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됐다.

1999년 개통한 인천지하철 1호선 굴현역의 출구는 1곳뿐이다. 굴현역 동편에 차량기지사업소가 있어 출구가 서편으로만 난 것이다. 출입구가 나지 않은 동편에는 굴현초등학교 등 굴현택지지구 주민 9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출입구가 없는 동편의 굴현택지지구 주민들은 굴현역 출구를 이용하

려면 가까운 길을 가로막는 열차차량기지를 돌아 약 2km이상의 거리를 걷거나, 마을안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관련 민원을 수 년전부터 시에 제기해 왔으며, 굴현역과 굴현택지지구 사이를 잇는 연결 보행로 설치 사업은 지역의 주요 현안이 됐다.

이행숙 부시장은 굴현역 인근 지역 현장을 방문해 오랜기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굴현역 이용 불편 호소를 경청하고 일상 속 생활 불편에 깊이 공감했다.

계양중학교로 등교하는 자녀를 둔 주민은 “학교를 가려면 차량기지 담벼락을 한참 돌아서 걷고,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등하교 길이 안전하지 않다”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함을 토로했는데, 굴현동은 탄약고, 차량기지, 공항철도, 외곽순환도로로 사면이 막혀 있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이행숙 부시장에게 인천시가 굴현역 연결 보행로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행숙 부시장은 “굴현동 주민들의 굴현역 이용 불편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시급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